

연구논문

중노년 여성주의 활동가의 리더십과 노인여성운동의 방향*

이동옥**

〈국문초록〉

이 연구는 중노년 여성주의 활동가들이 연령적 층위에서 어떠한 역할을 요구받고 리더십을 발휘하는지 심층면접을 통해 살펴본다. 활동가들은 네트워킹, 재정, 후배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후배의 창의성과 비판의식을 배우며 정보화능력을 습득한다. 활동가들은 느낌을 성찰하고 일의 양을 줄이면서도 후배들의 능력을 인정한다. 또한 이들은 은퇴를 고려하고 독자적 활동을 계획한다. 한편, 중노년 활동가들은 노인여성이 주체가 되는 당사자운동을 구상한다. 이들은 치유중심의 심리적 접근에서 성별 권력의 구조적 접근, 노인여성의 위치에서 노인돌봄의 해석, 그리고 의료에 관한 여성주의 관점의 필요성을 인식한다. 활동가들이 연령차별을 인식하고 자신의 계획과 노년의 쟁점을 연결시키고 리더십을 실천하는 것은 노인여성운동의 가능성을 열어 놓는다.

주제어: 노인여성운동, 중노년, 리더십, 여성주의 활동가, 연령차별

* 이 연구는 아모레퍼시픽재단의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

** 홍익대학교 교양교육원 초빙교수(foreastsky@hanmail.net)

© 2019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1. 머리말

고령사회의 진행으로 노년기의 여성주의 접근과 노인여성운동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노인여성운동이란 노인여성에 관한, 노인여성들을 위한, 노인여성들에 의한 여성운동으로, 노인여성의 위치에서 쟁점을 제기하고 권리를 주장한다(이동옥, 2016). 한국 사회에서 노인여성은 가난, 폭력, 범죄에 취약한 의존자, 피해자, 복지의 수혜자로 간주되어 왔고 여성운동의 주체로서 인식되지 못했다. 반면에, 여성운동은 노인요양보험제도의 구성과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등 노인돌봄의 제도화에 개입했다. 특히,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형성 과정에서 히구치 게이코(樋口恵子)의 ‘고령사회를 좋게 만드는 여성’의 활동을 참조하면서 성평등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그럼에도, 한국의 여성운동에서 노년의 문제는 주변화되어 있고 연령의 쟁점이 부각되지 못했다. 중노년 여성주의 활동가들은 연령의 층위에서 자신의 위치를 인식하지 못하지만, 선배의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은퇴를 계획한다. 이 연구는 여성단체 또는 후배와의 관계에서 중노년 활동가들의 리더십을 분석하고 이들의 경험에 기초해서 노인여성운동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다음의 내용을 고찰한다. 첫째, 중노년 활동가들이 나이듦과 더불어 여성단체에서 어떠한 역할, 책임을 인식하고 리더십을 실천하는지 살펴본다. 둘째, 중노년 활동가들이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측면에서 어떻게 노후를 준비하고 이러한 계획은 노인여성운동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고찰한다. 셋째, 활동가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여성운동에서 노인여성의 주체가 비가시화된 이유를 분석하고 당사자운동의 가능성을 살펴본다. 이 연구는 여성운동의 지평을 노년기로 확장하는 한편, 중노년 활동가

들이 노인여성운동에 어떠한 방식으로 참여하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이들의 역할과 책임 등을 논의한다. 아울러, 이 연구는 연령, 성의 교차 속에서 중노년 활동가들을 임파워먼트하고 노인여성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2. 선행연구와 연구방법

1) 선행연구

(1) 노인여성운동의 필요성과 함의

여성운동이란 여성이 중심이 되어 여성들을 조직화하고 성평등의 가치를 지향하는 운동이다(권수현, 2011; 홍미희, 2006). 한국 사회에서 여성운동은 노동시장에서 임금노동뿐 아니라 가족 내에서 무임 돌봄노동, 공사영역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쟁점화함으로써 법 제정에 일조했다(김영란, 2003).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여성운동은 활동가 양성의 부진, 진보 여성운동의 방향 상실, 운동성의 약화 등을 과제로 인식해 왔다(강이수, 2013; 신상숙, 2011; 황정미, 2006). 또한 여성운동은 여성을 피해자, 희생자로 다룸으로써 ‘주체’가 아니라 보호와 복지의 ‘대상’으로 위치시켰고(문은미, 2008), 양극화, 세계화, 이주 등 시대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여성간의 차이에 관한 분석이나 방법을 제안하지 못했다고 비판받는다(황정미, 2006).

여성 연대는 여성운동의 과제이고 차이는 여성 범주의 해체와 응집력 약화로 억압되어 왔다. 하지만 자매애의 강조는 여성 내부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특권층 여성들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소외된 여성들의 경험을 간과했다고 비판받는다(로드, 2018; 조희원, 2006; 혹스, 2002). 차이에 관

한 인식은 여성 주체간의 분열이 아니라 성찰성을 확보하게 한다. 이해정(2010)은, 여성간의 차이를 인식하면서도 연대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돌봄과 공감에 기초한 우정의 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연령 차이에 기초한 여성들의 갈등은 노인여성이 가부장적이라는 생각과 젊은 여성들도 노인여성에게 희생, 인내, 모성을 요구한다는 분노에서 비롯한다(Copper, 1988: 2; Reinhartz, 1997). ‘지혜, 관용, 침묵’이라는 노인여성에 관한 고정관념은 여성운동에서 연령차별을 의미하고 노인여성을 비가시화한다(Woodward, 2002). 노인여성은 연령적 층위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분노를 표현함으로써 여성운동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가부장제하에서 여성들은 나이듦을 외모와 재생산 능력의 상실로 부정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자기 분열을 경험해 왔다. 여성주의자들은 나이듦을 의료적 개입이 필요한 질병, 미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몸을 넘어서서 여성 개인의 삶과 역사, 문화에서 이해하고 그 의미를 재해석하기 위해 노력했다(Granville, 2000; Holstein, 2002). ‘또하나의 문화’는 남성중심의 시선으로 젊은 여성의 몸이 찬미되고 나이든 여성의 몸이 평가절하되는 맥락에서 여성들의 세대간 연대가 좌절되는 지점을 비판하면서 문화운동을 전개해 왔다(김은실, 2001; 조옥라, 2001).

외국의 노인여성운동에서는 경제적 독립에 초점을 두고 연령의 층위에서 여성 노동권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미국의 노인여성연맹(Older Women's League, 2019)¹⁾은 중년 이상의 여성들을 중심으로 성별 임금격차에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인턴십이나 직업의 재교육을 실시하고 연금, 의료, 건강, 돌봄에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호주와 캐나다의 노인여성네트워크(Older Women's Network, 2019)는 노인여성 노숙인을 위한 주택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노숙인은 ‘남성’으로 대변되거나 아내

1) 이 단체는 1980년 창립된 40세 이상 여성들의 여성단체로서 2017년 3월 전국 조직이 해산되고 지부별로 독립적으로 활동한다.

폭력을 경험하고 아이를 데리고 가출한 ‘중년여성’이나 폭력피해를 당한 ‘젊은 여성’으로 재현되어 왔다. 노인여성들은 사별이나 이혼 등 결혼 지위의 변화로 가난해지고 노숙을 하게 되는데, 질병과 약물남용으로 건강이 악화되고 범죄와 폭력에도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지원이 필요하다(McFerran, 2010).

여성의 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민우회 등에서는 아내폭력의 피해와 가난을 인식하고 노인여성의 인권과 노동권의 확보를 위해 투쟁해 왔고 중노년 여성을 대상으로 노후준비 교육을 통해 나이듦에 대한 여성주의 접근을 시도해 왔다(이동옥, 2016). 즉, 한국의 여성단체들은 황혼이혼, 가족 내의 폭력, 독거 노인여성의 성폭력, 가난, 성매매, 노화방지의학, 연금, 돌봄 등에서 쟁점을 제기해 왔다. 고령사회의 진행과 더불어, 여성운동은 연령의 층위에서 여성 문제를 좀더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노인여성에게 관한 고정관념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

(2) 중노년 활동가의 연령에 대한 인식과 리더십

여성주의 리더십은 전통적, 권위주의 리더십을 비판하면서 조직 내에서 성평등한 권력의 변화를 추구한다. 이러한 리더십은 명령, 지배, 힘, 소유, 정복 등의 위계적, 수직적 관계를 기초로 한 남성중심 리더십을 비판하는 한편, 상호작용적, 관계지향적, 민주적, 서번트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을 지향한다. 여성주의 리더십은 여성고용의 증대와 상위직 진출, 여성의 의식화와 임파워먼트를 위한 것이면서도 돌봄, 배려, 존중을 지향함으로써 가부장제의 대안을 제시한다(허라금, 2007). 또한 카리스마 있는 한 명의 리더가 이끌고 구성원들이 따라가는 방식이 아니라, 현장의 여성들, 복수의 여성 주체들의 역량이 증시된다(장필화, 2004; 허라금, 2007).

여성주의 관점에서 리더십은 여성리더십, 여성적 리더십, 여성주의 리더

십으로 구분되는데, 남성중심 조직을 변화시키기 위해 상호 보완되어야 한다(강민정·박지혜, 2018; 장필화, 2004; 허라금, 2007). 첫째, 여성리더십(female leadership)은 공적 영역에서 유리천장을 깨뜨린 여성의 생존, 성취 전략을 통해 역할모델을 제시한다. 둘째, 여성적 리더십(feminine leadership)은 여성 리더가 겸손, 배려, 관계 등의 여성성에 기반해서 구성원들과 상호작용함으로써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게 한다. 여성성을 강조하는 리더십은 ‘여성이 친절하고 관계지향적’이라는 생물학적 본질주의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협동적이고 수평적 조직문화를 지향한다. 셋째, 여성주의 리더십(feminist leadership)은 성평등을 목표로 여성을 임파워먼트한다. 이러한 리더십은 여성단체와 같은 여성주의 조직에 국한되므로 사회 전반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유교의 연령위계 문화는 조직 내의 역할분업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문화는 연장자의 경험과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나이 어린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다. 업적주의에 따라 연령의 위계는 변화되지만 연령의 역할은 토론과 합의를 중시하는 민주주의와 상충된다. 여성단체는 다른 조직과 마찬가지로 법적 지위 및 회원 가입 절차 등에서 형식적이고 배타적인 반면, 조직의 확장과 분업에 따른 비민주성을 우려하면서 정보 공유와 의사결정의 민주화를 추구한다(홍미희, 2006). 여성단체는 성평등을 지향하기 때문에 연령적 역할분업에서 다소 자유로울 것으로 기대되지만, 연장자로서 선배의 역할이나 책임이 동시에 존재한다.

여성운동 내부에서 세대 차이를 억압하거나 노인을 의심과 경멸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말고 노인여성의 경험을 존중해야 한다(로드, 2018; Brant, 1988: 87; Browne, 1998: 233). 여성주의자들은 나이든 남성들이 지혜, 경력, 품위 등으로 존경받는 것과 달리, 나이든 여성들의 역할모델을 찾기 어렵다고 비판해 왔다(슐라퍼, 2005). 여성들은 가족 내의 역할인 어머니와 할머니 외에 지적인 모델을 발견하지 못하면서 나이들을 삶의 연속선

상에서 해석하지 못한다. 중노년 활동가들은 선배로서 리더십을 실천하고 젊은 여성주의자들의 역할모델이 되면서 스스로 노년기의 역할모델을 만들어가야 할 과제가 있다.²⁾

(3) 여성들의 성별화된 노후준비

노후준비는 유교의 효문화에서 자녀에게 의존했지만 은퇴 이후의 삶을 독립적으로 계획하는 것으로 변화되고 있다(이여봉, 2012). 생산적 노인상에 기초한 성공적 노화는 노인을 의존적 존재로 상정하지 않지만, 노인들에게 다른 연령층에 부담을 주는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해 독립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갖게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후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노년기를 맞이하면서 어려움에 직면한다.

노년학자들은 노후준비에서 경제적 측면을 중시해 왔다. 경제적 독립은 관계, 의료, 돌봄과 연관되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후준비는 은퇴 이후 변화에 대한 적응과 여가와 시간의 구성을 포함해야 하고 관계의 유지와 심신의 건강관리를 고려해야 한다.

노인여성들은 성별분업의 구조하에서 남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함으로써 가족 내의 자원 접근에서 2차적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고 시간제 노동과 저임금 등 노동시장의 성별 임금격차로 노후준비에서 불리한 상황에 있다(김소희·박미현, 2015; 이동욱, 2003; 최희경, 2005). 노인여성은 남성에 비해 평균수명이 길고 유배우율이 낮으며, 빈곤, 질병 및 돌봄, 심리적 고독, 학대 등에 구조적으로 취약하다(곽삼근·박성희·김은경, 2008).

2) 토착적 지식을 전수하고 지역여성사를 쓰는 여성들, 전시성폭력 피해에 문제를 제기하고 아시아 여성의 연대를 이끌어낸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들은 노인여성의 역할모델이 될 수 있다(이명선, 2017; 장필화, 2017).

2) 연구방법

이 연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만 51세부터 64세의 여성주의 활동가 12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했다. 연구참여자들의 인적사항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익명으로 처리했다(〈표 1〉 참조). 한국 사회는 연금수령을 기초로 만 65세를 노인으로 규정하고 40세 이하를 청년으로 규정한다. 연구참여자들의 연령은 중년기에서 노년기로 넘어가는 시기, 노후준비의 시기로 ‘중노년기’로 정의한다. 이러한 연령의 설정은 조직 내에서 연령의 역할과 책임, 세대 차이 등을 살펴보고 노인여성운동의 전망을 탐색함으로써 연구방법으로 유용하다고 판단했다.

〈사례 L〉을 제외한 연구참여자들은 젊은 시절부터 수십 년 동안 여성운동을 했거나 여성단체의 창립, 핵심 구성원으로 활동해 왔다. 〈사례 L〉은 아내폭력과 이혼, 한부모가족의 가장으로 살아오면서 여성주의에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본격적으로 디지털 페미니즘에 참여했고 현재 여성주의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사례 K〉와 〈사례 L〉을 제외한 연구참여자들은 여성단체에서 상근한 경험이 있다. 〈사례 K〉는 여성주의 저널의 편집장을 임시로 수행한 적이 있고 문화, 환경, 종교 등의 여성단체에서 교육, 연구, 행사 프로젝트를 담당하거나 여성단체의 창립 구성원으로서 헌신해 왔다.

〈사례 B〉, 〈사례 F〉, 〈사례 I〉는 여성단체에서 일하다가 환경, 사회적 기업, 장애 등의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 〈사례 I〉는 전업주부로 살다가 여성단체에서 3년 상근한 이래로 평생회원이 되었고 이후 평화운동단체의 이사로서 운영에 참여해 왔다. 현재는 투병중으로 환우회의 대표로 활동하면서 여성주의 관점에서 의료, 장애, 질병에 관한 해석뿐 아니라 여성주의 조직운영과 리더십에 관심을 갖는다.

〈표 1〉 연구참여자의 인적 사항

사례	성별	출생 년도	직업	가족 및 결혼 지위	수입원	학력	주거	종교	활동 영역	여성단체 상근 기간
사례 A	여	1967	활동가	비혼	본인	석사 (사회학)	임대 주택	기독교	환경, 평화, 여성	5년
사례 B	여	1958	환경단체 (대표)	결혼 (남편, 1남, 분가)	본인, 남편	석사 (정책학)	자가	가톨릭	환경, 노동, 지역	17년
사례 C	여	1964	성인권 강사	결혼(남편, 1남1녀)	본인, 남편	박사 (여성학)	자가	없음	폭력	반상근, 단체 운영
사례 D	여	1967	대표	결혼 (시부모, 남편, 1남 1녀)	본인, 남편 (건축업)	석사 (정책학)	자가	없음	환경, 지역	5년 (반상근)
사례 E	여	1965	대표, 대학 강사	비혼 (어머니, 언니)	본인	박사 (여성학)	자가	기독교	이주, 평화	10년
사례 F	여	1964	시민단체 (활동가)	비혼 (어머니)	본인	석사 (여성학)	자가	기독교	폭력, 노동 지역	4년
사례 G	여	1964	활동가	비혼 (어머니)	본인	박사 수료 (여성학)	자가	기독교	종교, 복지	24년
사례 H	여	1961	상담소장	결혼 (남편, 1남 1녀)	남편, 본인	석사 (행정학)	전세	없음	폭력, 인권	17년
사례 I	여	1959	환우회 대표	결혼 (남편, 시어머니, 2남1남 결혼, 분가)	남편 (임대업)	석사 (아동학)	자가	기독교	미디어 , 평화	미디어 상근 2년, (이후 평화운동 의 이사로 활동)
사례 J	여	1963	은퇴 (전 여성단체 대표)	결혼 (남편, 2녀-1녀 결혼 분가)	남편 (교사), 본인	석사 (역사교육)	자가	기독교	환경, 폭력	15년
사례 K	여	1959	문화기획자, 번역가, 대학 강사	이혼 (어머니, 1남)	본인	박사 (인류학)	자가	가톨릭	종교, 문화, 환경	없음(프로 젝트 참여, 여성단체 초대 공동이사)
사례 L	여	1967	여성주의 카페운영	이혼 (어머니, 2남 분가)	본인	석사 (신학)	어머 니 소유	기독교	문화, 상담	기독교 여성단체 근무

여성주의 연령 연구에서는, 여성의 전 생애를 통한 성차별과 억압이 편재한다는 ‘생애접근법’과 성별 권력하에서 여성의 경험에 기초해서 노인여성의 삶을 이해하고 노인여성을 주체로서 입파워먼트하기 위한 접근이 요청된다(곽삼근·박성희·김은경, 2008). 심층면접은 소수의 사례에 의존하는 질적 방법이다. 이 방법은 대량의 표본을 통해 일반화, 표준화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양적 방법이 아니라 여성들의 경험을 통해 성별화된 상황과 맥락을 설명하기 위해 유용하다. 연구참여자들은 연구자의 지인이거나 지인을 통해 소개받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소개하는 눈덩이표집(snowballing sampling)에 의해 선정되었다. 몇몇 사람들은 연구 주제가 어렵다고 하면서 면접을 거절했지만 연구참여자들은 노인여성운동에 깊이 고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신의 노년을 생각해 보기 위해 면접에 응했다. 또한 이들은 심층면접을 계기로 연령의 위치에서 자신의 삶을 인식하고 노인여성운동을 구상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했다. 심층면접은 1-2회에 걸쳐 1-2시간 동안 실시하고 녹취, 분석했다. 질문은 반구조화된 형태로 진행되었고 편안하고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했다. 질문 내용은 중노년 활동가들의 역할과 능력, 선후배 관계에서 갈등과 대처방안, 노후준비의 상황, 노년기의 활동 계획, 노인여성운동의 가능성 등이었다.

3. 연령의 역할기대와 리더십

1) 선배의 역할과 책임

(1) 변화의 대처능력과 세대 간의 소통

연구참여자들은 오랜 경력에도 불구하고 나이듦에 따라 능력의 한계를 체험한다(사례 H, J). 이들은 여성인권에서 피해자를 상담해 왔고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자신이 피해자의 경험을 얼마나 이해했고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데에 기여했는지 회의한다. 하지만 이러한 평가는 높은 기대수준의 설정에서 비롯하기 때문에 전문성의 부족이 아니라 겸손, 성실성, 열정과 관련된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여성운동이 갈등, 협상, 설득을 위해 상당한 에너지를 요구한다고 생각하면서 노년의 활동을 고민한다(사례 D, J). <사례 D>는 사회성이 좋은 편이지만 다른 사람과의 논쟁을 싫어하기 때문에 리더로서 추진력이 약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역운동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일할 때 인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갈등 조정에서 장점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 <사례 J>는 내향적 성향이라고 생각하고 여성운동을 하면서 외향성과 공격성을 요구받음으로써 심신이 소진되었다. 또한 이 상태는 단기간의 휴식으로 치유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여성운동을 지속할 만큼 열정이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은퇴를 결심했다.

한편, 연구참여자들은, 중노년 활동가들이 젊은 활동가들에 비해 정보화능력에서 뒤처지기 때문에 남다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례 B>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기본 기술을 익히지만, 기술이나 기계에 대한 공포증을 갖는다. <사례 D>는 여성단체의 대표로서 중년의 전업주부를 채용했을 때 정보화능력이 뛰어나지 않아 실무를 못 해서 답답함을 느꼈다고

말한다. 연구참여자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활동가들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본적 정보화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상황은 젊은 하급자가 연장자의 실무를 처리해 주는 연령위계의 분업과 구분되었다.

오히려, 몇몇 연구참여자들은 연령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정보화기술을 재빠르게 습득하며 디지털 공간에서 활동하고 있다(사례 C, G, I, L). 〈사례 I〉는 여성단체에서 미디어 운동을 했고 정보화능력에 자신감을 느낀다. 그녀는 파킨슨병 환우회 대표로서 방송을 통해 전국의 환우들과 소통한다. 정보화능력의 활용으로 장애와 장거리는 제약이 되지 않는다. 또한 〈사례 I〉은 방송국의 웹피디로 일했고 현재 소셜미디어를 활용해서 사업을 홍보하고 디지털페미니즘에 참여한다. 그녀는 연령위계나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있는 연장자나 동년배들보다 열린 사고를 가진 젊은이들과 소통하면서 편안함과 즐거움을 느낀다.

그럼에도, 연구참여자들은 젊은 여성주의자들과의 소통에서 세대차를 경험하면서 어려움을 느꼈다. 연구참여자들은 후배들에게 신조어를 질문하면서 간극을 좁히려 했지만(사례 G, H), 스마트폰과 소셜 미디어를 사용한다 해도 디지털 네이티브가 아니기 때문에 젊은이들의 언어나 감각을 이해하지 못했다. 〈사례 D〉는, 노인 세대와 50대의 감성과 운동 방식이 다른 것처럼 젊은 세대와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소통하되, 협업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활동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한 몇몇 연구참여자들은 정보화기술을 따라잡기보다 후배들의 능력을 인정한다. 이들은 후배들이 영어, 홍보능력이 뛰어나므로 자율성을 부여하고 업무를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2) 선배의 역할 인식과 은퇴 압력

연구참여자들은 여성운동이 성평등을 지향하므로 수평적이고 합리적인

조직문화를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조직 내에서 선배의 역할을 인식한다. 상근활동가로 일하다가 대표가 된 연구참여자들은 조직 내의 역할을 재정과 네트워킹으로 해석했다(사례 B, D, H). 이들은 네트워킹이 인간관계와 경험을 활용하는 것으로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재정에는 부담을 느낀다. 하지만 후배들이 돈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싶어한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대표의 위치에서도 회계와 업무 보고서 작성 등의 실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분배로 후배양성이나 기획 등에 몰두하지 못한다(사례 D, F, H, J). 〈사례 H〉는 용역사업의 보고를 위한 문서 작업 때문에 야근하기 일췌다. 그녀는 속도가 빠른 후배들이 회계나 사업 보고 등의 실무를 맡아 주기를 바라지만 후배들도 바쁘기 때문에 자신의 일을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지 못한다. 그녀는 은퇴 이전에 운동사를 기술하고 젊은 활동가와 공유하고 싶어하지만 절대 시간의 부족으로 불평한다.

연구참여자들은 조직 안팎에서 후배 양성에 힘쓴다. 〈사례 D〉는 일의 방향을 제시하고 후배를 격려하는 한편, 간섭하지 않고 스스로 답을 찾아가도록 한다. 하지만 실무를 하지 않다 보니, 세세히 일을 알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사례 E〉는 후배들과 평등한 관계를 지향하다 보니 선배로서 권위나 존중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도 있다. 하지만 후배들과 소통하면서 후배들을 이해하고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아이디어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했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후배 여성주의자들의 고민과 열정을 이해하면서 경험을 나누고 격려했다. 이들은 “술과 밥을 사주는” 선배의 역할을 수행했다(사례 B, K, L). 연구참여자들은 힘든 상황에서 성차별과 싸우는 후배들을 격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행동은 선배들에게 받은 보은과 내리사랑이면서도 여성 연대로 해석된다.

연구참여자들은 젊은 여성주의자들과 소통하면서 참신하고 비판적인 아이디어를 배우고 싶어하지만, 기성세대로서 ‘꼰대’라고 비판받는 현실을 혼

란스러워한다. 〈사례 H〉는 젊은 여성주의자들이 선배들의 여성운동을 비판할 때 섭섭함을 느낀다. 후배들의 반응이 여성운동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 당시의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는다. 〈사례 B〉는 젊은 여성주의자들이 새로운 쟁점을 외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운동이 결실을 이루기까지 선배들의 수많은 노력이 있었다고 해석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선후배간의 소통과 여성운동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몇몇 연구참여자들은 후배 활동가들이 일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퇴근할 때 불편함을 느낀다(사례 A, G, H). 이들은 잔업을 하면서 헌신해 왔던 자신의 세대와 달리, 회사에서 일하는 것처럼 정시의 퇴근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후배들의 행동을 비판한다. 또한 먼저 퇴근한 후배 대신에 일정에 맞춰 그 일에 책임을 져야 하는 현실을 불평했다. 하지만 이들은 선배들에게 받았던 배려와 돌봄을 생각하면서 관용적이지 못한 선배로서 자신의 한계를 인식한다. 더욱이, 한국사회의 장시간 노동문화를 인식하면서 여성단체에서조차 돌봄을 고려하지 않고 일, 가족을 병행하지 못하면서 빠른 속도, 효율성, 생산성을 중시해 온 현실을 성찰한다.

“나는 80, 90까지 일하고 싶어”, 그런 얘기하잖아요. 나는 “감동이야”, 하는데 어떤 선생님들은 “그거 주책이야”, 나는 깜짝 놀랐어. 그럴 게 뭐가 있어요. 여기 안에서도 무슨 은퇴가 있어. 자기가 좋아서 하는데. (...) 잘 아는 분인데 ‘저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스태다운 해야지, 그렇게 말해서 깜짝 놀랐어요(사례 B).

〈사례 J〉를 제외한 연구참여자들은 여성운동에 관한 열정에도 불구하고 오래 일하는 것이 후배의 앞길을 가로막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은퇴를 고민했다. 〈사례 E〉는 선배들이 후배들을 위해 현장에서 물러났다가, 단

체로 돌아와 활동하는 현실을 언급한다. 선배들의 활동은 자신의 은퇴 시기를 늦추는 데에 도움이 되지만 선배들의 안일하고 권위적인 태도 때문에 함께 일하는 것이 편안하지만은 않다. 이러한 현실에서 본인이 계속해서 일해야 하는지 회의한다.

지금까지 활동하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구요. 우리 또래 중에는 몇 명 안 남았어요. 단체 하나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은 그게 정말 좋아서 하기도 하고 조그만 재단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어쨌든, 50이 돼서도 밖에서 활동을 하면서 너무 재밌다 하는 사람들을 보면 각별한 마음이 들어요(사례 B).

연구참여자들은 여성단체 내에서 40대부터 그만두어야 한다는 압력을 느끼기 시작한다. 조직 내에서 대표를 제외하고 50대의 상근 활동가가 적기 때문이다. 〈사례 H〉는 50대 활동가들이 후배들에게 존중받지 못하고 실무에도 뒤떨어지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정치권의 이동을 기회로 해석한다. 반면에, 〈사례 J〉는 정치권 이동을 명예와 권력에 대한 욕망으로 비판하고 은퇴를 결심한다.

연구참여자들은 여성운동이 정치권에 입문하는 과정이 되어서는 안 되고 활동가들이 열정과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사례 B, E). 하지만 이들은 연령규범에 영향을 받으면서 은퇴와 이직을 고민하고 있었다.

2) 중노년 활동가의 현실과 노후준비

(1) 노년의 가난과 경제적 독립

연구참여자들은 장시간, 저임금 등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했지만 성평등한 사회 변화에 일조했다는 자부심이 있었다(사례 B, F). 하지만 이들은

경제적으로 노후준비를 하지 못했다. 특히, 비혼의 연구참여자들은 기혼의 사례보다 노년기의 가난에 취약한 상황이다. 기혼의 연구참여자들은 남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왔고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었다(사례 D, H, I, J). 〈사례 D〉와 〈사례 H〉는, 남편이 노동운동을 그만두고 가족의 생계를 부양함으로써 여성운동에 전념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고마움을 표현한다. 반면에, 〈사례 J〉는 교사인 남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해 온 현실을 수치스러워한다. 그녀는 여성운동을 하면서 경제적 독립 없이 권리만 강조해 왔다는 사실로 갈등해 왔고, 자수 공방을 통해 노년기의 경제적 독립을 계획한다.

하지만 기혼의 연구참여자들이 자녀교육, 결혼, 노년기의 생활비와 의료비 등의 지출이 요구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안정되었다고 할 수만은 없다. 〈사례 C〉는 남편이 의료전문직 종사자이고 중산층 이상에 속하지만 노년기의 수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심층면접 이후에 여성 관련 공공기관의 상위직에 취직했다. 또한 〈사례 H〉는 서울 근교의 아파트에서 전세를 살고 있고 노년기의 비용과 대학교육, 결혼 등 성인자녀들에 관한 기본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사례 B〉는 비혼의 사례보다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다. 그녀는 남편이 노동운동을 하다가 정치권으로 옮겨지만 생계유지와 자녀교육에 급급하면서 살아왔다. 그녀는 예금이나 재산이 많지 않아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 한 채를 부부를 위한 노후 비용으로 생각한다. 그녀는 현재 환경단체의 대표이지만 여성노동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했고 평화, 환경 분야에서 여성단체의 자문과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대표직은 월급이 적고 자문, 원고, 강의료 등으로 생계를 유지한다.

한편, 비혼의 연구참여자들은 여성단체에서 일하면서 많은 재산을 축적하지 못했으므로 생계를 위해 계속 일하기를 원했다(사례 A, F, G). 〈사례 F〉는 기혼자에 비해 가족, 남편으로부터 얻는 경제적 이익이 없다고 말하

면서 젊은 시절에 간과했던 중산층의 아파트, 재산 등을 선망했다. 이러한 사고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반영하지만 비혼 활동가의 경제적 불안을 반영한다.

내가 (여성)운동을 하면서 월단위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불안한 거죠. 엄마 모시고 있으니까 엄마 돌봄에 대한 중압감이 있고.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 내가 혼자 살 때도 아프지 않고 살아야 하는 거고. (...) 지금 직장을 그만두면 저축으로는 생활할 수는 없죠. 내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아파트라는 건 일정한 수입을 전제로 하는 곳이잖아요(사례 G).

〈사례 G〉는 황반변성으로 고생하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 그녀는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어머니를 돌보고 있고 기혼의 형제자매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는다. 하지만 비혼의 활동가로 살면서 경제적 불안을 감수해 왔고 예금이나 재산이 많지 않으므로 은퇴 이후의 아파트 관리비, 의료비, 간병비 등의 경제적 문제를 고민한다.

기혼인 〈사례 J〉는 비혼 활동가들의 가난한 현실을 지켜보면서 경제적 준비 없이 노년을 맞이하는 상황을 안타까워한다. 그녀는 정부 또는 여성운동의 차원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은퇴한 비혼 활동가의 생계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 열정과 체력

연구참여자들은 일의 열정을 갖지만 노안, 근골격계질환, 피로, 체력저하 등 신체적 변화를 느낀다. 한부모가족의 가장인 〈사례 K〉는 아들이 대학을 졸업했으므로 인생의 과업을 완수했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싶어한다. 하지만 시력이 나빠졌고 밤을 새우지 못하기 때문에 능률적으로 일을 하지 못한다.

몇몇 연구참여자들은 여성운동이 젊은이의 체력과 열정을 요구하기 때문에 계속 활동하는 것이 본인과 단체를 위해 바람직한가 하고 회의한다. 연구참여자들은 안정과 보수라는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싸우는 한편, 젊음, 열정이라는 여성운동의 이미지가 노인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혼란스러워했다. 또한 여성운동이 창의성과 상상력에 기초한 비판과 대안을 요구하기 때문에 부담을 느꼈다. 〈사례 J〉는 여성단체 지부의 활동가로서 열심히 일했지만 본부의 회의에 갈 때마다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해야 해서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녀는 젊은 활동가의 도움을 받고자 했지만 갈등을 겪으면서 좌절했다.

근데 저는 뭔가 도모하는 게 재밌어요. 운동 중에서도 상투적이고 관습적인 언어를 쓰고 방법론도 똑같고 그런 게 참 지루하더라고요. (...) 운동할 때 힘들었던 거는 내가 그런 데서 못 벗어났을 때 관성화된 것이. 운동은 기본적으로 관성화되면 안 되는 거죠(사례 B).

운동이라는 거는 끊임없이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어떤 이슈도 만들어내서 하고 자그마한 거라도 소리를 내어 이슈를 만들고 정책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이제 그런 에너지가 안 되는 거야. (...) 내가 선배들한테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아, 네가 좀 해라” 그랬거든. 옛날 선배들이 폼만 잡고 실무를 하려고 하지 않거든. 근데 나도 그러더라고(사례 E).

연구참여자들은 여성운동을 ‘오래’ 하는 것보다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관성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몸이 느려지는 것을 경계한다. 이러한 태도는 나태한 선배로서 비난받거나 후배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연구참여자들은 젊었을 때의 속도를 유지하면서 장시간 일했다. 이들은 휴식, 운동, 치료가 필요하지만 바쁜 일정으로 몸을 돌보지 못했

다. <사례 1>은 여성주의 카페를 운영하면서 저자와의 대화를 기획하고 독서 토론과 회의 공간을 제공한다. 그녀는 시간제 직원을 고용하지만 책의 구입, 정리부터 서빙, 설거지, 청소를 한다. 또한 밀폐된 공간에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쉬지 못한다. 한편, <사례 D>는 건강한 편이었지만, 몇 년 전에 아토피로 고생하면서 체력이 약화되었음을 느꼈다. 또한 그녀는 갱년기 증상으로 무릎 통증을 느끼면서 운동의 필요성을 느낀다. 하지만 꼭 짜인 스케줄로 활동하다 보면 운동할 시간과 여력이 없다.

한편, 몇몇 연구참여자들은 질병, 수술, 과로를 통해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고 신체적 나이들을 고려해서 일을 줄이고 운동을 시작한다(사례 B, C, G). <사례 G>는 자궁암 수술과 교통사고 이후에 태권도를 수강하고 초교과 명상 모임에 참여하면서 스트레스를 완화한다. 또한 <사례 C>는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이었지만, 과거와 똑같은 양의 일을 하면 병이 나서 며칠씩 앓아 누워야 한다. 그녀는 기억력의 감퇴로 실수를 반복해서 일에 관한 욕심을 자제한다. 특히, 젊은 여성주의자들과의 협업은 빠른 속도와 체력에 부담이 되어 더 이상 계획하지 않는다. 반면에, <사례 B>는 젊었을 때 일에 대한 욕심이 많았고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50대 중반부터 체력의 한계를 느끼고 일을 줄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왕성하게 활동하지만 요가와 수영을 배우고 자정 이전에 잠자리에 들려고 노력한다. 또한 젊은 활동가와 스케줄을 조정할 때 신체적 나이들을 고려해 달라고 협상한다.

연구참여자들은 나이들을 고려하지 않고 젊음의 속도에 부응해서 일하고 건강을 돌보지 못하지만, 몸의 변화를 인식하고 일을 줄이며 운동과 휴식을 선택한다. 또한 나이들을 빠른 속도에 대한 성찰과 느낌의 삶을 연결시키면서 자신의 삶을 재구성한다.

(3) 독자적 활동과 여성 연대

연구참여자들은 단체에서 계속 일하기보다 독자적으로 저술, 교육, 사업을 하기 원한다. 이들은 과업을 성취하고 경제적 수익과 명예도 얻고 싶어 한다. <사례 K>는 대학의 교양학부에서 비전임으로 강의하고 번역, 출판한다. 노년기에도 혼자 또는 몇몇 학자들과 함께 연구하고 출판할 계획이다. 또한 <사례 E>는 여성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지만 박사학위 취득 이후 연구에 집중하고 싶어한다. 그녀는 이론과 실천을 연결시켜 평화 분야의 여성운동을 정리하고 싶어한다.

제 것을 하고 싶어요. 제가 역량을 키우고 누구를 선택하고 그런 게 어머니가 딸려요. 단체를 만들고 싶은 욕구도 있고 비즈니스도 하고 싶고, (...) 이제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계속하고 싶고 자기 사업이나 그런 거죠. 일은 평생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사례 F).

<사례 F>는 국제협력 활동 이후 여성인권 단체에서 일했고 현재 시민단체와의 연계하에서 〇〇구의 사회적 경제사업의 실무자로 일한다. 그녀는 당연직인 여성이사들과 함께 일하면서 회의감을 느낄 때가 많다. 이들은 지역 유지들로서 전업주부로 살다가 남편의 지위로 이사직을 맡게 되었다. 그녀는 50대 중반에 실무를 하면서 비합리적인 내용을 지시받거나 위계적인 조직운영에서 혼란스러울 때가 많다. 이러한 사정으로 단체에 소속되기보다 여성주의 카페나 미술, 출판 등의 사업을 하고 싶어했다. 1차 면접 이후에 조직이 축소되었지만 센터장으로 승진했고 의사결정권이 확대되어 만족하고 있다. 한편, <사례 I>는 장애, 질병, 의료에 대한 여성주의의 해석과 더불어, 환우회에서 여성회원들의 리더십 교육에 주력한다. 또한 회의 전에 여성들의 다과 준비를 당연하게 생각해 왔던 남성중심 문화를 개선했다.

연구참여자들은 나이 들어 평활동가로 일하기 힘들다고 생각하고 전문 분야에서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싶어한다. 이들은 경력을 특화시켜 새롭게 도전하거나 업적을 성취하기 원한다. 이들은 연대와 소통을 포기하지 않지만 혼자서 활동하기 원한다.

연구참여자들은 노년기에 다가가지만 자신을 노인과 분리해서 생각했고 노인여성 중심의 단체 구성이나 노년의 쟁점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이들은 노인여성운동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자신의 일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만큼 노인여성운동은 낯선 분야였고 중노년 활동가들은 노인이 되면 여성운동을 떠나거나 자율적으로 활동했지만 연령적 위치에서 계획하지 않았다.

4. 노인여성운동의 비가시화와 노년의 쟁점

1) 노인여성의 위치와 당사자운동의 가능성

연구참여자들은 노인여성운동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인식의 부재와 재정적 자립 때문에 당사자운동이 어렵다고 생각한다(사례 C, E). <사례 C>는 노인여성들이 체력이나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세대의 여성들에게 지원을 받아야 하지만 세대간의 관심 차이로 지원을 받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사례 E>는 노인여성운동이 당사자운동이 되려면 회원제에 기초한 재정적 자립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노인여성들이 회원이 되어 단체를 후원할 수 있을지 회의한다. 본인 또는 남편의 은퇴 이후 수입이 줄고 의료비, 간병비의 지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성별 분업의 구도하에서 경제적으로 의존해온 노인여성들은 정기후원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반면, 몇몇 연구참여자들은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노인여성들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운동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사례 I, G). 〈사례 I〉는, 자원활동을 하는 노인여성들을 통해 노인여성운동의 가능성을 전망한다. 노인여성들이 여성주의를 지향하지 않았지만 선의를 갖고 이웃의 가난한 독거노인을 돌봐 왔고 이러한 돌봄의 공동체가 복지, 사회 안전망의 기능을 해왔으므로 노인여성운동이 실현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사례 G〉는 전국 조직의 기독교 여성단체에 속해 있다. 다수의 노인여성 회원이 이 단체에서 회비를 내고 있지만 50대 이상의 여성에 관한 사업은 부재하다. 이러한 사실은 여성단체의 연령차별을 반영한다.

연구참여자들은 노인여성을 무력한 피해자, 의존자가 아니라 가부장제에 저항, 순응하면서 생존해 온 내면의 힘을 가진 존재로 인식한다. 연구참여자들은 여성운동에서 노인여성이 주체가 되어 목소리를 내고 이러한 목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사례 D, E). 노인여성이 여성운동의 주체로서 경험에 기초해서 쟁점을 구성하는 당사자운동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이다.

동원의 방식에서 많이 참여를 하고 운동의 차원으로 삶을 공유하지는 못하죠. 복지의 수혜자에서 운동의 주체로서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복지의 수혜자로 다루는 방식에는 동의하지 않아요. (...) 50, 60대에 활동하는 사람들을 가정폭력예방교육에 참여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거부감이 있더라구요(사례 H).

노인운동에서 여성들은 남성들의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거나 여성쟁점을 주류화하지 못했다(이동옥, 2016). 또한 한국의 노인운동은 남성중심적이고 관변단체 중심으로 정치적 보수성을 견지해 왔다. 이러한 이유로 여성주의자들은 주류의 노인운동과 거리를 두었고 노년의 쟁점에도 무관심한

경향이 있었다. <사례 H>는 가족 내에서 노인여성의 폭력이나 인권에 관심을 갖지만 지역의 노인복지회관과 연계해서 교육할 때 노인여성들의 냉담한 반응에 당황한 적이 있다. 하지만 노인여성들이 교육을 통해 성평등의 감수성을 높인다면 여성운동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연구참여자들은 국제회의에서 만난 외국의 노년 활동가들을 보면서 긍정적으로 해석한다(사례 D, E). 하지만 노년의 활동가들이 선배 대접을 받으려고 하거나 후배들의 활동을 간섭한다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한편, 연구참여자들은 노인의 위치에서 여성문제를 고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례 G>는 한국 사회에서 노인문제를 주요 과제로 인식했지만, 정작 여성운동에서는 노년의 쟁점을 등한시해 왔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자신의 단체에서도 노인여성 회원이 적지 않으므로 이들의 식화하고 조직화한다면 당사자운동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어머니는 학교를 안 다녔기 때문에 글을 읽긴 읽는데 독서를 안 하는 거죠. 사람들과의 관계나 강연, 텔레비전 아니면 정보를 접근하지 못하는 거죠. 지금의 노인은 활자를 읽을 줄 아는 세대잖아요. 저는 새로운 세대의 운동, 마을이나 지역에서 새로운 운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노인운동이 여성운동의 관점을 갖는다면 마을공동체의 여성들에게만 전달시키는 방식만이 아니라 은퇴한 남자노인들과 함께 여성들이 지역사회 시스템의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요(사례 D).

<사례 D>는 70·80대의 여성들이 저학력, 독서의 양, 비판능력과 정보활능력의 한계 등으로 당사자운동이 어려운 맥락을 설명한다. 하지만 현재 50대 여성은 민주화 운동의 세대로서 가까운 미래에 노인여성운동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50대 전업주부들이 가족 내의 과업을 완수하고 시민운동에 참여할 때 노인여성운동이 활성화된다고 생각한다. 연구참여자들은, 중년의 활동가들이 노년의 쟁점을 구성하거나 노인여

성이 여성주의 의식화를 통해 조직화될 때 노인여성운동이 당사자운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 노인여성 정책의 관점에 관한 비판

(1) 치유에서 성별권력의 접근

가부장제 문화에서 여성들은 평생 동안 구조적 취약성으로 노년기에 의존이 심화됨으로써 폭력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강선경·김현진, 2016). <사례 H>는 노인여성을 상담하면서 가족관계에서 인권침해와 폭력피해가 심각한 것을 알게 되었고 이들을 구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가족 내 폭력을 일부의 피해여성으로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성별분업, 가부장제라는 구조적 차원에서 노인여성의 경험을 해석하고, 노인여성을 대상으로 성평등교육, 여성인권 교육, 여성주의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한편, 기존의 노인여성 정책은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경제적 지원, 건강, 돌봄, 치유 등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서경현, 2015; 서홍란·김희년, 2010; 주소희, 2013). 하지만 노인여성의 가난이나 의료에 관한 관심을 넘어서서 관계, 여가로 관심을 확대해야 한다.

복지에서 할 수 없는 노인관계 형성을 위한 커뮤니티, 노인커뮤니티 구성을 여성운동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해. 복지가 아니라 여성노인의 외로움, 소통을 위한. 지금 생각중이야.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는지. (...) 복지는 빈곤의 문제나 의료나 건강의 문제에서 해줘야 하고 노인의 외로움이나 놀이문화는 커뮤니티, 운동 차원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해(사례 C).

요보호 여성을 만들고 특정 피해 여성, 구조적인 불행을 해결하지 않고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여성운동이 벽에 부딪힌 것이 ○○○상담

소, 개별적으로 심리적 접근을 하는, 힐링으로 해결하는 건 너무 싫어하거든요. (...) 문제를 파악하게 되면 화가 가라앉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할지 인정하고 그 문제를 개인화하고 개인의 심리적인 문제로 환원하고.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사례 D).

〈사례 C〉는 노인여성들의 관계가 건강과 행복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성별권력의 접근이 효과가 있다고 해석하고 섹슈얼리티, 임파워먼트, 리더십과 노인여성운동을 연결시키고 싶어한다. 〈사례 D〉는 노인 여성에 관한 접근이 상담이나 치유에 초점을 둔다고 비판한다. 이러한 접근은 가부장제, 성별 권력이라는 구조적 차원을 간과하므로 현실을 변화시키기 어렵다는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연령, 세대간의 차이를 인식하고 소외된 노인여성의 쟁점을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돌봄노동과 시민 참여의 제한

한국의 노인여성들은 고부갈등이나 남아선호의 편견으로 가부장적 통념에서 자유롭지 않았지만 딸들이 보다 성평등한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 딸들의 고등교육, 결혼 이후의 가사노동, 손자녀양육을 지원해 왔다. 여성들은 노년기에도 돌봄의 역할에 구속되면서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는다. 즉, 돌봄제도의 미비로 노인여성들은 시민 참여, 여성운동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사례 H〉는 자신의 단체에서 활동하던 중노년 회원들이 손자녀양육으로 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을 지켜본다. 가족 내에서 어머니의 돌봄노동에 의존해서 맞벌이 성인자녀의 삶이 유지되는 현실을 비판하면서 연령의 층위에서 여성문제를 인식한다. 다른 세대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고 돌봄 공백이 노인여성의 돌봄노동으로 대체되는 현실은 여성운동을 비롯한 공적 활동을 저해한다.

한편, 여성주의 연구자들은 돌봄 정책이 노동력의 재생산이나 여성노동

력의 활용이라는 생산성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고 비판한다(마경희, 2017; 서정애, 2018; 신경아, 2011; 이동옥, 2009; 장수정, 2009). 즉, 삶의 과정으로서 아동, 장애인, 환자, 노인의 돌봄을 인식하고 정책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돌봄의 가치는 변화되지 않는다.

우리가 누군가의 돌봄을 받아야 하는데, 친정엄마나 시어머니에게 돌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남성들도 어머니에 대한 신화가 있었듯이, 여성들도 당연히 어머니들의 삶에 주목하지 않았죠. 지금 시어머니, 80대의 삶에 주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런 삶에 대해서 겨우 여성운동 세대가 사회적 고립과 신체적 고통을 느껴서 이러한 부분을 인식하고 있는 거지. 엄마들은 당연히 희생해야 하는 존재가 아닌가, 여성운동 안에서도 묵과하지 않았을까요(사례 D).

〈사례 D〉는 돌봄을 노인여성의 삶과 연관시키고 주요 쟁점으로 인식한다. 돌봄의 평가절하와 비호혜성으로 여성들은 노년기에도 가족 내에서 돌봄에 구속되어 있고 노인돌봄의 수혜도 받지 못한다. 돌봄을 둘러싼 세대간 여성들의 갈등은 남성중심 사회에서 여성들에게 돌봄의 역할을 강요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해석된다. 돌봄의 주체이자 대상인 노인여성의 문제는 복합적인 맥락에 놓여 있다. 어머니, 시어머니의 돌봄노동을 평가절하하고 “어머니는 희생적인 존재”로 간주하며 모성의 틀 안에서 노인여성을 위치시키는 것은 사회적, 정치적 참여를 배제시킨다.

연구참여자들은 노인돌봄을 수혜자의 위치에서 인식하지 않았지만 노부모를 방문하거나 함께 살면서 노부모가 나이드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노인돌봄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된다(사례 B, C, D, E, G). 특히, 노부모와 함께 사는 연구참여자들은 노인돌봄을 하고 있으므로 노인돌봄의 제공자로서 이중고를 호소했다(사례 D, E, F, G, L). 이들은 노인돌봄의 책임이 가족에서 사회로 바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부담이 크다는

것을 실감한다. 하지만 자신을 돌봄제공자로서 정체성을 가지면서도, 수혜자로서 노인돌봄을 계획할 만큼 여유를 갖지 못했다. 이 부분은 돌봄의 대상이자 수혜자인 여성의 경험을 고려하지 않는 현실을 반영한다.

(3) 노년의 의료화에 대한 비판

연구참여자들은 건강과 몸에 많은 관심을 갖고 환경, 먹거리, 질병 등과 자신의 활동을 연결시키고 싶어한다(사례 B, C).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노인돌봄이나 죽음을 먼 미래의 일로 해석한다.

한부모인 연구참여자들은 경제적 측면에서 자녀와 독립적으로 노후를 준비하지만 돌봄은 무방비 상태이고 안락사를 고려했다(사례 K, L). 비혼인 연구참여자들은 죽음의 과정과 의료적 장치 속에서 돌봄을 가족과 분리해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고민을 한다. 〈사례 E〉는 비혼 여성으로 언니와 어머니와 함께 살지만, 돌봄과 죽음의 문제를 혼자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친한 여성주의자들과 죽음을 논의하고 싶지만 모임을 만들거나 주도할 만큼 열정은 없다. 또한 후배들과 어울리기 때문에 연령적 관심사의 차이로 죽음을 언급하지도 못하는 상황에 있다. 또한 비혼인 〈사례 A〉는 심장에 스텐실을 넣는 수술을 받으면서 혈연 가족인 보호자가 필요했다. 그때 그녀는 80대 어머니를 동반했고 비혼으로서 의료제도의 문제점을 실감했다. 〈사례 A〉는 노인여성의 건강과 돌봄이 의료 권력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인식하고 노인여성운동의 위치에서 의료적 쟁점을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노년기의 의료화는 노인들을 질병의 대상으로 해석하고 의료 결정에서 몸에 대한 주체성을 확보하지 못하게 하고 죽음의 장소나 방법에서 선택을 제한한다. 노년의 의료화는 다국적 의약시장에서 자본의 이익을 추구하는 한편, 노인의 건강을 고려하지 않고 노인을 의존자로 해석함으로써

개인주의, 독립, 생산의 가치를 강화한다(크룩생크, 2016; Calasanti and Slevin, 2001). 〈사례 A〉는 의료의 제도화, 노년기의 의료적 개입을 비판하면서 노인의 몸에 대해 심신의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노인여성이 의료적 결정의 주체가 아니라 자녀인 보호자와 상의하거나 의사의 말을 따르는 아이로서 다뤄지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한다.³⁾ 〈사례 A〉는 돌봄과 의료의 문제를 연관시켜 여성주의 소모임을 만들고 싶어한다.

전 세계의 노인여성운동에서는 의료에서 쟁점을 제기한다. 미국 노인여성연맹의 샌프란치스코 지부(2019)는 사적 건강보험의 사기를 당한 노인 여성의 신고를 받고 이를 구제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호주의 노인여성네트워크(2019)는 가정폭력 피해, 노숙의 경험이 있는 노인여성들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지원한다. 일본의 여성학자 우에노 치즈코(上野千鶴)는 비혼여성으로서 집에서 돌봄을 받고 죽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한다. 그녀는 돈이 많지 않고 돌볼 사람이 없어도 집에서 죽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죽음의 방법을 제도화하고자 노력한다(우에노, 2016). 한국의 여성주의 의료생협에서 은평구 주민과 비혼 여성주의자들이 지역의료운동을 전개해서 노년 의료화에 관한 대안을 제시한다(전희경, 2014). 또한 옥희살롱(2019)은 나이듦, 죽음, 질병, 장애, 돌봄, 시간, 세대 등에 관심을 갖고 연구, 교육, 번역, 출판 등을 전개한다. 이와 같이, 노인여성운동은 의료권력에 대항해서 나이듦과 죽음의 과정을 여성주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나이듦, 몸과 질병, 장애에 대한 성찰과 더불어 의료적 처치와 결정에서 주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노인여성의 가난, 차별, 폭력, 생물학적 특성 등을 고려해서 의료권력에 대항하는 건강과 돌봄의 제도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3) 남성의사, 심지어 여성간호사와 노인요양사의 관계에서도 노인여성은 아이처럼 다뤄지고 이들의 욕구는 무시되어 왔다(Bernard and Davies, 2000).

3) 여성들의 관계와 공동체 구성

(1) 놀이, 여가, 교육

비혼의 연구참여자들은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노년을 설계하는 기혼의 사례들에 비해 관계의 욕구를 표현했다(사례 A, E, G). 노년기에는 관계, 우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재도 진실한 친구를 찾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사례 A>는 동료들과는 이해관계에 얽혀 마음을 열지 못하므로 친구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여성주의 친구들이 결혼, 출산 등으로 돌봄에 묶여 관계가 소원해졌고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도 쉽지 않다고 말한다. <사례 G>는 교회와 취미생활을 통해 다양한 관계망을 구축한다. 하지만 동시에 인생이 혼자라는 사실을 각인시키면서 고독에 익숙해지기 위해 훈련한다. <사례 E>는 비혼이기 때문에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의식적으로 관계맺기에 주력한다. 하지만 나이듦에 따라 체력의 한계로 만남을 줄이다 보니 기존의 관계조차 축소된 것을 느낀다. 이러한 상황은 자신의 삶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연구참여자들은 노인여성을 위한 공간으로 종교조직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종교는 소외된 노인을 위해 심방, 장례지원, 식당 등을 통해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지원을 해왔고(김정희, 2016), 여성들이 가난, 이혼, 남편의 외도, 폭력의 위기에 있을 때 자신의 삶을 성찰하게 함으로써 자기 비난을 극복하고 임파워먼트에 도움이 되었다(김양희, 2010; 이동욱, 2013). 하지만 종교가 있는 연구참여자들은 종교제도의 보수성, 가부장성 때문에 노인여성을 위한 공간이 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사례 B, F, L). 기독교 신자인 <사례 F>는 교회가 보수적이고 성역할을 강조하기 때문에 노인여성운동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한다. 또한 <사례 B>는 50대 이후 가톨릭에 귀의하면서 정서적 안정을 얻었다. 그러나 나태, 여성사제 등 성차별적 교리, 성직자의 권위주의적 태도에 실망하면서

성당을 노인여성의 공간으로 상상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몇몇 연구참여자들은, 많은 노인여성들이 종교생활을 하기 때문에 교회, 절, 성당 등이 여성주의 공간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한다(사례 C, G, J). 〈사례 C〉는 성당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이모를 보면서 노인여성들의 삶에서 종교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종교조직을 통해 여성주의 의식화가 진행된다면 노인여성의 조직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일 사람들이 솔직할 때는 죽을 때인 것 같아. 죽을 때가 되면 회한을 안 갖고 죽게 되잖아요. 여성노인들이 돌아보면 자신의 삶에 회한이 많을 것 같아. 종교를 갖고 여성으로서 자존감, 삶의 건강한 인식들을 정리해 내는 시간,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은 건강이나 내가 가진 것들을 직면하고 정리해 가는 시간을 통해, 죽을 때 억울함이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 하는 것도 중요한 운동의 이슈다(사례 G).

연구참여자들은 종교의 공간을 정치적인 측면뿐 아니라 영적인 측면에서 의미를 부여한다. 노인여성이 가부장제 사회, 가족에서 받았던 상처를 치유하고 자신의 고통을 재해석하면서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한 사람의 삶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물리적 공간인 교회에 모여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며 배우고 노는 것은 소외를 극복하고 관계의 욕구를 만족시킨다. 종교 공간에서 여성주의 의식화 교육과 상담이 진행된다면 노인여성들이 임파워먼트됨으로써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경로당은 대한노인회 산하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전국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노인인구의 성비는 여성이 많지만, 경로당은 노인여성들을 위한 공간이 되지 못한다. 〈사례 K〉는 아파트단지의 경로당에서 노인여성들이 식사 준비나 청소를 하면서 노인남성들을 돌보는 현실을 비판한다. 노인남성들은 노인여성들의 돌봄을 당연시하면서 명령, 지시하는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경로당이 여성친화적 공간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경로당은 밥을 먹고 수다를 떠는 동네의 사랑방으로 정서적 기능을 하지만, 창업, 사회적 기업 등의 경제적 독립, 놀이, 건강,⁴⁾ 취미와 교육의 공간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기혼의 연구참여자들은 부부중심으로 노후를 준비하지만 여성주의 공간을 만들고 싶어한다. <사례 B>는 놀이와 여가를 위한 물리적 공간인 세컨드 하우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공간은 상주하지 않아도 되고 장거리, 전원에 위치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전주여성전화 비혼여성의 소도입인 ‘비혼들의 비행’(비비)⁵⁾은 대안 경제공동체로 발전해서 비혼여성 아카데미, 페미야학을 운영한다(이미정, 2017). 비비의 구성원들은 40대로서 여성주의 관점에서 지역 노인공동체를 탐색한다. 또한 ‘마포 민중의 집’의 ‘할머니 밥상’ 프로젝트는, 노인여성이 음식을 통해 젊은 세대와 경험을 나눔으로써 자신의 삶을 재해석하고 임파워먼트를 하는 계기가 되었다(오김현주, 2014). 이 사례는 노인여성을 위한 여가, 놀이, 교육의 공간이자 여성주의 공동체로 참조할 수 있다.

(2) 주거, 경제적 독립, 돌봄

노년기의 경제적 독립은 주거, 안전, 건강, 돌봄 등 삶의 질과 관련된 다. 기혼의 연구참여자들은 부부중심으로 경제적 준비를 하고 주거에도 안정성을 보인다. 하지만 비혼의 연구참여자들은 경제적, 정서적 요구로 공동체에 관해 관심을 보였다. 연구참여자들은, 공동체가 협력과 공존을 지향하면서도 독립적 공간이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했고, 지역을 떠나 분리된 노인공동체를 선택하는 것에도 신중했다(사례 A, F, K). <사례 A>는

4) 경로당에서는 노인여성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운동, 영양, 인지능력 향상 등의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서경희·은영, 2015)

5) 2003년 창립해서 2010년 ‘여성생활문화공간 비비’로 발전, 문화배움터이자 정서적 교류를 해왔고 2016년 협동조합으로 조직되었다.

귀촌한 친구들을 자주 방문하고 공동체에 대해 제의를 받는다. 그녀는 농촌공동체에 관심이 있지만 대중교통이나 예술영화관 등 도시의 문화, 병원, 편의시설에 익숙해 있으므로 귀촌을 망설인다. <사례 F>는 독거를 하면서도 이웃과의 교류가 활발한 지역공동체를 원한다. 또한 전원주택에서 노인여성의 독거는 범죄에 취약하므로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세대간의 공간적 분리보다 세대통합적 지역공동체를 선호한다.

<사례 B>는 남편과 이혼할 생각이 없지만 친구들과 공동주택의 구입을 논의한다. 노인공동주택은 정서적 지지뿐 아니라 생활비를 절약하고 세제 감면 등의 경제적 이익이 있기 때문이다. <사례 B>는 건강할 때뿐 아니라 노인돌봄까지 제공하는 공동체를 상상한다. 그녀는, 다른 기혼의 연구참여자와 달리, 남편과의 관계에서 돌봄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노인돌봄의 공동체를 탐색한다. 또한 <사례 K>는 독일 유학을 통해 지인의 할머니가 사는 요양원이나 여성주의 노인공동체를 방문하면서 대안을 탐색해 왔다. 이 과정에서 요양원에 고립된 노인의 삶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조현(2018)은 젊음, 독립의 신화가 강조되는 문화에서 나이듦에 따라 의존과 돌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대안공동체를 탐색한다. 그는, 노인이 마을에서 함께 사는 것이 소외감과 고독감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한다. 노인들은 요양원에 분리, 수용되기보다 노년기에도 지역사회에서 관계를 맺으면서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싶어한다(김현진·안옥희, 2006; 목수정, 2015).

연구참여자들은 스칸디나비아의 노인공동주택이나 프랑스의 여성주의자 테레즈 클레르(Therese Clerc)의 '바바야가의 집'을 노인공동체의 대안으로 구상한다. 스칸디나비아의 노인공동주택은 정부의 지원과 공동체 구성원의 협력하에 운영되고 사생활보호와 공동생활의 이익을 추구하며 안전과 소속감을 보장한다(최정신·폴손, 2015). 즉, 침실, 거실, 부엌, 욕실 등 개

인 공간을 보장하는 한편, ‘커먼 하우스(common house)’라는 취미, 공동 식당, 오락 등의 공간을 공유하면서 관계적 욕구를 충족시킨다. 바바야가의 집은, 입주자인 노인여성과 소수의 젊은 여성 직원이 함께 생활하는 여성주의 공동체이자 노인여성 단체다. 이 공동체는 주거, 돌봄, 경제의 기능을 충족시키고 죽는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즉, 여성주의 노인공동체는 사회적 기업의 운영이나 창업 등 경제적 독립과, 능력개발, 인문학, 죽음준비, 성평등 의식화 등의 인격적 성장을 도모한다.

5. 맺음말

중노년 활동가들은 나이듦에 따라 체력, 창의성, 정보화능력에서 한계를 경험하지만 재정, 네트워킹, 후배양성 등을 위해 노력한다. 이들은 계속 일하고 싶어하지만 은퇴 압력을 받고 정치권의 이동이나 독자적 활동을 고민한다. 이 상황은 여성운동 내의 연령차별을 고찰하게 한다.

중노년 활동가들은 돌봄제도의 미비로 가족 내에서 손자녀양육과 노인 돌봄의 제공자로서 중노년 여성들이 시민적 참여와 여성운동에서 주변화되는 현실을 인식한다. 또한 노인여성이 보호, 의존을 넘어서서 주체가 되는 당사자운동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더 나아가, 노인여성 정책에서 치유중심의 심리학적 접근을 넘어서서 성별권력에 기초한 구조적 접근, 노인돌봄에서 제공자이자 수혜자라는 복합적인 맥락을 고려하고 의료, 건강에 대한 여성주의 접근을 제안한다. 한편, 중노년 활동가들은 가부장제하에서 폭력이나 부정을 경험해온 노인여성의 영적 치유와 삶에 대한 재해석, 죽음준비 교육, 놀이, 관계맺기를 통한 임파워먼트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하지만 경제적 독립이 건강, 주거, 안전 등 노년기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므로 연령의 층위에서 여성노동권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노년 활동가들은 여성운동 안에서 연령차별을 인식하고 노년의 쟁점을 제기해야 한다. 노년기 계획과 노인여성의 쟁점을 연결시키고 리더십을 실천하는 과정은 노인여성운동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 연구는 연구참여자들이 고학력 중산층에 속하는 한계가 있다. 이들이 여성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노인여성운동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지만, 보다 다양한 집단의 여성들, 특히 여성단체의 회원인 중노년여성의 경험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노인여성운동의 비가시화된 현실 때문에 중노년여성을 연구참여자로 포함시켰지만 후속연구에서는 노인여성인 여성주의 활동가의 경험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민정·박지혜(2018), “조직 내 네트워크 구성의 성별 차이에 관한 연구”, 『젠더와 문화』, 제11권 2호, 89-123쪽.
- 강선경·김현진(2016), “학대경험 여성노인의 삶의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제59권, 27-63쪽.
- 강이수(2013), “여성주의 연구를 돌아보다: 여성운동, 노동, 가족연구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제100호, 229-249쪽.
- 곽삼근·박성희·김은경(2008), “여성노인의 젠더 불평등 경험과 인식 전환에 대한 연구”, 『한국여성학』, 제24권 4호, 141-174.
- 권수현(2011), “여성운동과 정부 그리고 여성정책의 동학”, 『아시아여성연구』, 제50권 1호, 7-48쪽.
- 김소희·박미현(2015), “중고령 여성의 시간제 일자리 결정요인과 노후준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1호, 185-196쪽.
- 김양희(2010), “여성 역량강화의 관점에서 본 영성 수련”, 한국여성철학회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발표문(2010.10).
- 김영란(2003), “한국의 여성운동과 여성복지정책의 변화”, 『한국사회학』, 제37권 3호, 187-216쪽.
- 김은실(2001), “몸의 경험과 느낌을 중시하는 새로운 사회에 대한 구상을 제의하며”, 『여성의 몸 여성의 나이』, 또하나의 문화 동인(편), 서울: 또하나의 문화, 33-52쪽.
- 김정희(2016), “독거노인의 고독사 시대,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신학논단』, 제85호, 37-63쪽.
- 김현진·안옥희(2006), “고령자 그룹홈의 운영과 거주자의 생활 실태”, 『한국거주학회논문집』, 제17권 4호, 155-163쪽.
- 로드, 오드리(2018), 『시스터리 아웃사이더』, 주혜연·박미선 옮김, 서울: 후

- 마니타스, Lorde, A.(1984), *Sister Outsider: Essays and Speeches*, New York: Crossing Press.
- 마경희(2017), “돌봄철학과 사회적 돌봄 정책 개혁”,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차기 정부 성평등 정책 토론회 자료집 발표문(2017.3.29).
- 목수정(2015), “노인을 위한 나라를 꿈꾸다, 테레즈 클레르”, 『파리의 생활 좌파들』, 서울: 생각정원, 15-30쪽.
- 문은미(2008), “여성운동과 젠더 정치학의 미래”, 『여/성이론』, 제19호, 86-98쪽.
- 서경현(2015), “한국여성 독거노인을 위한 웰빙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분석”,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제21권 4호, 595-615쪽.
- 서경희·은영(2015), “경로당 여성노인의 신체활동에 대한 영향요인”, 『근관 절건강학회지』, 제22권 3호, 236-244쪽.
- 서정애(2018), “저출산담론과 젠더”, 『더 나은 논쟁을 할 권리』, 김은실 엮음, 서울: 휴머니스트, 175-195쪽.
- 서홍란·김희년(2010), “요보호 여성독거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35권, 176-202쪽.
- 슬라퍼, 한네로레(2005), 『노년의 미학』, 김선형 옮김, 마산: 경남대학교 출판부, Schlaffer, H.(2003), *Das Alter: Ein Traum von Jugend*, Frankfurt: Suhrkamp Verlag.
- 신경아(2011), “여성노인의 구술생애사를 통해 본 돌봄 윤리의 재구성”, 『젠더와 문화』, 제4권 2호, 197-226쪽.
- 신상숙(2011), “신자유주의 시대의 젠더-거버넌스: 국가기구의 제도적 선택성과 여성운동”, 『페미니즘 연구』, 제11권 2호, 153-197쪽.
- 오김현주(2014), “사회적 경제를 넘어 공동체 경제로, 그리고 여성주의적 공동체 경제가 형성되기 위한 조건들”, 『여/성이론』, 제30호, 11-35쪽.
- 우에노, 치즈코(2016), 『누구나 혼자인 시대의 죽음』, 송경원 옮김, 서울: 어른의 시간, 上野千鶴子(2015), 『おひとりさまの最期』, 東京: 朝日新聞出版.
- 이동옥(2003), “여성들의 노후준비와 자원접근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

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석사학위 논문.

_____ (2009), “노년기 여성의 보살핌 경험과 가치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박사학위 논문.

_____ (2013), “태국의 여성 승직 배제와 가족관계”, 『민주주의와 인권』, 제 13권 2호, 441-481쪽.

_____ (2016), “여성간의 차이와 노인여성운동의 가능성”, 『여성학논집』, 제 33집 1호, 69-97쪽.

이명선(2017), “변화를 만드는 글로컬 리더십”, 『페미니즘, 리더십을 디자인 하다』, 파주: 동녘, 251-282쪽.

이미정(2017), “비혼여성공동체로 사는 이야기”, 『여/성이론』, 제37호, 331-340쪽.

이여봉(2012), “중년여성의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가족과 문화』, 제24집 1호, 31-70쪽.

이혜정(2010),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몇 가지 단상”, 『한국여성철학』, 제 14호, 65-89쪽.

장수정(2009),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담론 분석”, 『노인복지연구』, 제44호, 209-226쪽.

장필화(2004), “여성 리더, 여성적 리더십, 여성주의적 리더십”, 이화리더십 개발원 개원 1주년 기념 학술대회 발표문(2004.9.17).

_____ (2017), “새로 쓰는 여성주의, 리더십”, 『페미니즘, 리더십을 디자인 하다』, 장필화·나임윤경·이상화 외 지음, 파주: 동녘, 19-50쪽.

전희경(2014), “마을공동체의 ‘공동체’성을 질문하다”, 『페미니즘 연구』, 제 14권 1호, 75-112쪽.

조옥라(2001), “한국사회에서 나이듦, 그리고 여성의 나이”, 『여성의 몸 여성의 나이』, 또하나의 문화 동인(편), 서울: 또하나의 문화, 21-32쪽.

조현(2018), 『우린 다르게 살기로 했다』, 서울: 휴.

조희원(2006), “여성과 차이”, 『한국정치학회보』, 제40권 3호, 103-123쪽.

주소희(2013), “여성독거노인의 자살사고 관련 요인 연구”, 『복지행정논총』, 제23권 2호, 91-121쪽.

최정신·이언 폴손(2015), 『스칸디나비아의 시니어코하우징』, 서울: 어문학사.

최희경(2005), “빈곤 여성노인의 생애와 빈곤 형성 분석”, 『노인복지연구』, 제27권, 147-174쪽.

크룩생크, 마거릿(2016), 『나이들을 배우다』, 이경미 옮김, 파주: 동녘, Cruikshank, M.(2009), *Learning to Be Old: Gender, Culture, and Aging*, Totowa: Rowman & Littlefield Publishing Inc.

허라금(2007), “여성주의 리더십 이해를 위한 시론”, 『지구화시대의 현장여성주의』,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345-366쪽.

홍미희(2006), “진보적 여성운동의 조직적 특성”, 『페미니즘 연구』, 제6호, 169-207쪽.

황정미(2006), “한국 여성운동의 의제와 성찰성”, 『안과 밖』, 제21호, 10-39쪽.

혹스, 벨(2002), 『행복한 페미니즘』, 서울: 백년글사랑, Hooks, B.(2000), *Feminism is for Everybody: Passionate Politics*, Cambridge: South End Press.

Bernard, M. and V. H. Davies(2000), “Our Ageing Selves: Reflections on Growing Older”, in *Women Ageing: Challenging Identities, Challenging Myths*, ed. M. Bernard, New York: Routledge, pp. 57-72.

Brant, B.(1988), *A Gathering of Spirit: A Collection of North American Indian Women*, New York: Firebrand Books.

Browne, C.(1998), *Women, Feminism, and Aging*, New York: Springer.

Calasanti, T. M. and K. F. Slevin(2001), *Gender, Social Inequalities and Aging*, Walnut Creek: Altamira Press.

Copper, B.(1988), *Over the Hill: Reflection on Ageism between Women*, Freedom: The Crossing Press.

Granville, G.(2000), “Menopause: A Time of Private Change to a Mature

- Identity”, in *Women Ageing: Challenging Identities, Challenging Myths*, ed. M. Bernard, New York: Routledge, pp. 73-92.
- Holstein, M. B.(2002), “A feminist Perspective on Anti-aging Medicine”, *Generations*, 25(4), pp. 38-43.
- McFerran, L.(2010), *It Could be You: Female, Single, Older and Homeless*, New South Wales: Older Women’s Network NSW Inc.
- Reinharz, S.(1997), “Friends or Foes: Gerontological and Feminist Theory”, in *The Other Within Us: Feminist Explorations of Women and Aging*, ed. M. Pearsall, Boulder: Westview Press.
- Woodward, K.(2002), “Against Wisdom: The Social Politics of Anger and Aging”, *Cultural Critique*, 51, pp. 186-218.

〈인터넷 자료〉

- 노인여성연맹 샌프란치스코 지부(2019), <http://www.owlsf.org/>(검색일: 2019.02.18).
- 미국의 노인여성연맹(2019), <http://www.wowl.org/>(검색일: 2019.02.14).
- 옥희살롱(2019), <http://okeesalon.org/>(검색일: 2019.01.14).
- 캐나다의 노인여성네트워크(2019), <https://www.facebook.com/OlderWomensNetwork/>(검색일: 2019.06.28).
- 호주의 노인여성네트워크(2019), <http://www.ownsw.org.au/>(검색일: 2019.02.01).

(논문투고일: 2018.10.30, 심사확정일: 2019.06.01, 게재확정일: 2019.06.28)

〈Abstract〉

Leadership of Middle and Old-Aged Feminists and the Direction of Older Women's Feminist Activism

Lee, Dongok*

Based on in-depth interview, this research explores how middle and old-aged feminists perceive their age, roles, and leadership, showing that they are active in matters of networking, finance, and training young activists. The middle and old-aged feminists are ready to learn creativity and accept criticism from younger activists, as well as acquiring IT competence. They also reduce the amount of work undertaken and reflect on slowness. Middle and old-aged activists consider their retirement, complying with age-norms and making plans to act independently. In addition, the research participants explore older women's feminist activism, stressing the need to take the structure of gendered power beyond a psychological approach. They also take into account the issue of elderly care in the complex context of the giver and receiver of care, recognizing in particular a feminist approach to health, medicine, and death. Furthermore, these middle and old-aged activists identify ageism in feminism and are eager to promote conscious-raising of older women. When they display the leadership regarding this issue, the prospect of older women's activism is optimistic. Older women's labor movement should be activated, because the economic independence in old age affects the quality of life.

Key words: older women's feminist activism, middle and old age, leadership, feminist, ageism

* Visiting Professor, General Education Institute, Hongik University